

# 내달 평양 남북 국회회담 '한국당 변수'

### 남북,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서 시기·장소 구체화 한국당 부정적 입장 유지... 보수 빠진 반쪽회담 우려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국회회담이 '11월 평양 개최'를 목표로 남북 정치권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 4-6일 평양에서 진행된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우리측 정치인들과 북측 최고인민회의 인사들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당시 북측 관계자는 우리 측 취재진에 "11월 평양에서 국회회담을 열자는 의견을 (남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1회는 평양에서, 그다음번은 내년엔 서울에서 하자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북한에서는 올해 안에 행사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국회회담에 개최에 대해 남

북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시기와 장소도 '11월 평양'으로 특정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남북 국회회담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국회회담은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돼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성사된 적 없었다.

최대 변수는 우리 측 보수정당의 입장이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회담 개최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도 "국회회담인 만큼 여야가 함께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 고민"이라며 여야 간 회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야당들은 국회회담을 북한의 '대남 유희공세'로 규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이어서 국회회담 성격의 회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급이다.

현재 한국당은 판문점 공동선언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 참여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만일 국회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보수야당이 빠진 '반쪽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보다는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어 남북 국회회담에 함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남북국회담을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번 방북 때 북측에 "정권안 뺀다"고 언급하는 등 오히려 기를

부었다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권안 뺀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국회회담 가서도 남북 정쟁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여당 대표는 국회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인데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북측에서 한국당의 참석을 바라고 있는데 한국당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빠른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어떤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5일 남북 정치인모임 비공개모임에서 국회회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보수정당 참여 없이 회담이 진행된다면 남측에 여러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담의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당의 불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6개 특위 구성 합의 실패

### 민주-한국당, 위원 추천권·경협특위 입법권 부여 놓고 대립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 회동을 하고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구성과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마지막 통과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위를 포함한 6개 특위를 가동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위 구성과 관련,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놓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지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이 남북경제협력특위에 사법개혁위 정개특위처럼 입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당은 이는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해찬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통과 노력"

### 민주당 지도부 대전서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내에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자치분권 확대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라며 "일찌감치 중앙정부의 의정이 많이 (대전에)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4 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게 평양 시내에 많이 붙어있는 슬로건이었다"며 "과학이 그만큼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 비약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전 일정을 마친 뒤 오후 3시에는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으로 넘어가 충북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과학도시"라며 "일찌감치 중앙정부의 의정이 많이 (대전에)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4 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게 평양 시내에 많이 붙어있는 슬로건이었다"며 "과학이 그만큼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 비약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전 일정을 마친 뒤 오후 3시에는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으로 넘어가 충북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정청 "판문점 국회 비준·개혁 입법 완수 최선"

### 철도 연결·문화체육 교류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 노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8일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후속 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처럼 대북제재 해제 등의



"한반도 평화 앞당깁시다" 민주당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나가기로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상호적대행위 금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즉각 이행을 가능한 과제 이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고용상황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쏟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해 52개의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혁입법은 물론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비준 갈등

### 의원 워크숍 통일부 장관 보고 놓고 파열음

바른미래당 내 정체성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낸 것이다.

조명규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 끝에 퇴장했다. 지도부는 조 장관 참석 이유를 설명하며 수습에 진땀을 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바른미래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조 장관을 초청해 정부의 대책을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존중하고, 함께 대비책을 세워 논의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수구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욱·이학재·김중로 등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 참석의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워크숍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이들 의원은 조 장관이 오후 3시30분 의중 참석을 취소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워크숍이 열리는 회의장을 떠났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임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